

한일 연극교류의 현황과 전망

: 2023년 일본 공연을 중심으로*

서재길 _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일본에서 상연된 한국 관련 공연
- III. 일본 주요 극단의 공연 현황
- IV. 일본 내 각종 공연예술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한국 연극 소개 현황 및 한국에 소개될 만한 일본의 현대 연극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일 연극 교류의 미래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필자의 방일 연구 기간 중 일본에서 공연된 한국 관련 작품 및 일본 저명 극단의 작품 관극,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몇 개의 공연예술제 참가 등을 통한 현장 조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필자가 체재하는 동안 일본에서 접했던 한국 관련 공연 중 한국에서 이미 공연된

* 본 논문은 2023년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조성사업(초빙 펠로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방일 연구의 성과물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가라 주로, 유미리, 스키키 다다시 등 일부 작가/연출가의 한국 공연에 대한 정보를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논문 수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꼼꼼한 검토와 제언에 감사드린다.

작품으로 역사적 인물을 다룬 것과 관동대진재를 다룬 것, 그리고 노동 문제 등 한국의 사회문제를 다룬 일련의 작품이 있었다. 그 외에도 자이니치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다룬 작품들이 초연되었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학교 폭력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일본 내 사회 문제를 그린 작품도 있었는데 이들 작품들은 무대를 한국으로 바꾸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감대를 가진 것이었다. 그 외 조반센 무대예술제 2023, SCOT Summer Season 2023 등의 다양한 공연예술제는 공연예술 장려와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관객층과 작품 레퍼토리, 정부 지원 정책, 지역별 연극감상회 활동 등 한일 간의 공연문화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연극 교류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연극, 희곡, 공연예술제, 문화교류, 연극감상회

1. 머리말

한국의 한일연극교류협의회와 일본의 일한연극교류센터가 격년마다 번갈아 진행한 양국의 현대 희곡 번역 소개 및 낭독 공연의 역사는 2022년 20년을 맞이했고, 2023년도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¹⁾ 2023년 일본에서는 젊은 연극인들로 구성된 일한연극교류센터에 의해 ‘한국현대희곡 리딩 공연: 넥스트 스테이지’가 시작되었고, 2024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된 한일연극교류협의회에 의해 기획된 ‘제 11회 일본 현대희곡 낭독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²⁾

-
- 1) 두 단체에 의한 한일 연극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는 서재길, 「한류 드라마에서 K-연극으로—한국 근현대연극의 일본 소개 현황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29,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2021 참조.
 - 2) 그동안 진행된 무료 낭독공연에서 나타난 ‘노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1회부터 낭독공연을 유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객석이 거의 만원이 될 정도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본 연구는 이 두 단체에 의한 긴 공연예술 교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연극 교류의 과제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약 5개월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일본에서 공연된 한국 및 유관 작품의 관극 및 관계자 인터뷰, 일본의 저명 극단에서 공연하고 있는 작품 관극 및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몇 개의 공연예술제 참가 등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방문 연구가 끝난 뒤의 두 차례 추가 방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연구 과정을 통해 필자는 일본에서 약 30편 가량의 연극을 관람할 수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지금까지 관극한 작품에 대해 한국 관련 작품과 그 외의 작품으로 나누어 정리하고(2, 3장), 일본에서 방문한 세 차례의 공연예술제(4장)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5장). 5개월이라는 단기간의 방일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제한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한일연극 교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본 논문이 다소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일본에서 상연된 한국 관련 공연

필자가 체재하는 동안 일본에서 접했던 한국 관련 공연은 대략 아래와 같다.

작품명	극단	공연일시	공연장소	비고
윤동주 이야기	1인극연구회	6/15 (목)	시어터X	1인극연구회
길 떠나는 가족	문화좌	7/1 (토)	아울스팟	
노란 봉투	청년좌	7/9 (일)	기치조지시어터	
토끼, 파도를 달리다	NODA MAP	7/11 (화)	도쿄예술극장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	실행위원회	7/14(금)	호쿠토피아	총 5편
9월, 도쿄의 거리에서	린코군	8/28(화)	자 고엔지	낭독공연

작품명	극단	공연일시	공연장소	비고
현해탄	현해탄상연회	8/31(목)	조후시 센가와극장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극단 스바루	9/1(금)	도쿄예술극장	
별을 스치는 바람	청년극장	9/10(일)	기노쿠니야사잔시어터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신주쿠양산박	10/13(금)	시모기타자와자스즈나리	

별도의 장에서 다룬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를 제외한 총 9편의 작품 중 한국에서 기존에 공연된 작품으로는 <길 떠나는 가족(旅立つ家族)>(김의경 작)과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失われた歴史を探して)>(김의경 작), <노란 봉투(黄色い封筒)>(이양구 작)의 세 편을 들 수가 있다.

극단 문화좌(文化座)가 히가시이케부쿠로아울스팟(東池袋あうるすぽっと)에서 공연한 <길 떠나는 가족>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을 다룬 것으로 한국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인을 아내로 둔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그린 이 연극은 작품 속에 이중섭의 그림을 오브제로 활용한 독특한 연출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문화좌는 이 작품의 지방 순회 공연까지 진행했는데, 신주쿠양산박(新宿梁山泊)과 더불어 향후 김의경의 작품을 10여 편 정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기치조시시어터(吉祥寺シアター)에서 공연된 청년좌(青年座)의 <노란 봉투>는 한국의 노동 문제와 세월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희곡을 쓴 극작가 이양구는 <노란 봉투>의 일본 공연 직전에 다른 희곡 작품 <당선자 없음>으로 2023년 백상예술상을 받기도 했다. 일본 굴지의 재벌기업 세이부(西部) 백화점 이케부쿠로 점 폐점을 둘러싼 수십 년만의 노동자 파업이 세간의 화제거리가 될 정도인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일본 관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기도 했다. 일본 공연에서는 노동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작품 속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 공연을 기획한 청년좌는 번역극 장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다시마 유시(小田島雄志) 희곡 번역상의 2023년 수상자가 되는 경사를 맞이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운동주를 다룬 두 편의 작품 중 시어터X(シアターX)에서 진행된 1인극 연구회(一人芝居研究会) 제 10회 시연회 공연 작품 〈운동주 이야기—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尹東柱物語—空と風と星と詩)〉는 니노미야 사토시(二宮聡)가 연출 겸 일인극 배우로 무대에 선 작품이다. 2017년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낭독되었던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³⁾의 원작을 니노미야 사토시가 1인극의 형식으로 각색하여 시인 운동주의 시와 삶을 묘사한 작품이다. 아코디언 연주를 배경으로 1인극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작품이었다. 니노미야는 뒤에 설명할 〈현해탄(玄海灘)〉에서도 주인공 김달수 역할을 맡을 정도로 최근의 한국 관련 연극에서는 빠질 수 없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무대에서 〈운동주 이야기〉를 공연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했다. 운동주의 재학 당시 연희전문학교 기숙사였던 핀슨관에 세워진 운동주 기념관 같은 곳에서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다면 한일 연극 교류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별을 스치는 바람(星をかすめる風)〉은 소설가 이정명의 팩션 『별을 스치는 바람』을 원작으로 하여 극작가 겸 연출가 시라이 게이타(シライケイタ)가 각색, 연출한 작품이다. 원래는 2017년 운동주 탄생 100주기를 앞두고 청년극장⁴⁾에서 관련 연극을 기획하였으나 적당한 작품을 찾지 못해 무산되었던 것이, 2019년 이정명의 동명 소설이 일본어로 번역⁵⁾된 것을 계기로 시라이 게이타가 각색 및 연출을 맡게 되면서 공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2020년

- 3) '시인 운동주를 기념하는 릿쿄 모임(詩人尹東柱を記念する立教の会)'을 이끌고 있다.
- 4) 정확한 명칭은 '아키타 우자쿠·히지카다 요시 기념 청년극장(秋田雨雀・土方与志記念青年劇場)'이다. 이름에 '극장'이 들어가 있지만 극장명이 아닌 극단명이다. 아키타와 히지카다는 일본 메이지·다이쇼 시기의 진보적 연극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 5) イ・ジョンミョン, 鴨良子訳, 『星をかすめる風』, 東京: 論創社, 2019.

청년극장의 제 124회 정기 공연으로 초연을 가졌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관객 제한 등으로 인해 아쉽게도 극히 소수의 관객만이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가 거의 잠잠해진 2023년 가을에 청년극단이 131회 정기공연으로 새롭게 무대에 올랐다. 2023년 가을 도쿄의 기노쿠니야 사잔시어터(紀伊國屋サザンシアター, 9.8~17)에서 공연을 가진 뒤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 1년에 걸친 장기간의 일정으로 수도권을 비롯 간사이(関西), 규슈(九州), 주쿠쿠(中), 시코쿠(四), 호쿠리쿠(北陸), 주부(中部) 등 서일본 지역 순회공연을 진행 중에 있다.⁶⁾ 역사적 사실과 픽션이 섞여 있는 원작을 무대예술로 잘 승화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며, 이 작품이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도 이어지기를 희망한다.⁷⁾

2023년은 관동대진재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필자의 체재 기간 중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문제를 다룬 다양한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이 있었다. 관련하여 모리 다쓰야(森達也) 감독의 영화 <후쿠다무라 사건(福田村事件)>⁸⁾이 개봉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고,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관련 공연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 <9월, 도쿄의 거리에서(九月, 東京の路上で)>는 가토 나오키(加

6) 순회공연 도시는 다음과 같다. 下関市, 別府市, 大分市, 飯塚市, 田川市, 直方市, 北九州市, 熊本市, 鹿児島市, 宮崎市, 都城市, 長崎市, 島原市, 諫早市, 佐世保市, 福岡市, 佐賀市, 平塚市, 茅ヶ崎市, 藤沢市, 川崎市, 横須賀市, 鎌倉市, 紀の川市, 阪南市, 和歌山市, 京都市, 彦根市, 神戸市, 橿原市, 上田市, 松本市, 長野市, 諏訪市, 北アルプス, 伊那市, 徳島市, 鳴門市, 高知市, 香川市, 松山市, 富士山, 沼津市, 伊豆市, 静岡市, 清水市, 藤枝市, 島田市, 浜松 岡崎市, 豊橋市, 岐阜市, 尾北市, 名古屋市, 稲沢市, 津演市, 伊勢市, 知多半島, 幸田市, 魚津市, 砺波市, 高岡市, 金沢市, 富山市.

7) 참고로 필자가 지도교수로 참여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알파 프로젝트—별을 스치는 바람' 팀에서 2024년 6월 7, 8일 양일에 걸쳐 학생극 형식이지만 최초의 국내 공연을 올렸다.

8) 이 작품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923년 9월>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어 신인감독 부문 최우수 작품상(뉴 커런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藤直樹)의 동명 논픽션⁹⁾을 극단 린코군(燐光群)의 사카테 요지(坂手洋二)가 각색, 연출하여 자 고엔지(座・高円寺)의 무대에 올린 것이다. 이 작품은 극단 린코군에 의해 2018년에 이미 초연된 바 있는데, 2023년에는 관동대진재 100주기를 기념하여 낭독공연이라는 형식으로 무대화되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2020)을 앞둔 2018년을 배경으로 하여 도쿄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주민들이 관동대진재로 죽임을 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나무(樵の木)를 가라스야마(烏山) 신사에 기증받을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논쟁 과정에서 동명 서적을 가이드로 과거의 역사를 추체험하는 방식으로 연극은 진행된다. 당초의 공연이 그러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낭독극은 불가피하게도 다큐멘터리 비슷한 독특한 형식을 취했다. 한편 이 공연 직후 진행된 애프터톡 행사에서는 9월 1일 공개를 앞둔 영화 <후쿠다무라 사건>의 총괄 프로듀서인 고바야시 산시로(小林三四郎)와 변호사인 모리카와 후미토(森川文人), 모리다쓰야 감독과 세타가야구 의회 의원인 가미카와 아야(上川あや) 등 작품과 관련된 인사들이 등장해서 세타가야구의 조선인 위령 관련 이슈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사회운동과 공연, 영화 등의 문화예술운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이벤트였다.

신주쿠양산박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는 1985년에 한국에서 초연된¹⁰⁾ 김의경 원작의 동명 작품을 관동대진재 100주기를 맞이하여 내용을 다소 각색하여 무대화한 작품이다.¹¹⁾ 1986년 제 22회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받기도

9) 加藤直樹, 『九月、東京の路上で—1923年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 東京：ころから, 2014. 번역본은 가토 나오키, 서울리다리티 역,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1923년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 갈무리, 2015. 원래 이 작품은 관동대진재 전후의 사건들을 시계열을 따라 검증하는 동명 블로그를 바탕으로 하여 간행되었다고 한다.

10) 1985년 초연은 극단현대극장의 제9회 대한민국연극제 출품작으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문예회관 극장에서 김상열 연출로 무대화되었다.

11) 이 작품에 대한 연구로 백현미, 『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과 1980년대 한국·일

한 김의경의 원작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당사자가 과거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다시 40년이나 흐른 2024년 시점에서는 서사적 화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젊은 일본인 여성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과거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¹²⁾

관동대진재를 다룬 〈9월, 도쿄의 거리에서〉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두 작품은 모두 현재의 일본인들이 100년 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역사로서 수용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양심적인 시민 세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100주기를 맞이하는 일본사회의 시민의식 제고를 지향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문화를 즐기는 모임(異文化を愉しむ会)’과의 제휴로 ‘현해탄을 상연하는 모임(玄海灘を上演する会)’이 주최한 기획공연 〈현해탄(玄海灘)〉은 소설가 김달수(金達壽, 1919-1997)의 장편소설 『현해탄』을 각색하여 조후시 센가와극장(調布市せんがわ劇場) 무대에 올린 것이다.¹³⁾ 자이니치(在日) 작가 김달수의 1943~1944년 당시 경성일보(京城日報) 체험을 바탕으로 일본 식민지 말기의 경성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군상들을 묘사하는 한편, 일본으로 귀국한 뒤 또다시 차별받는 자이니치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문화를 즐기는 모임’의 회장이자 에세이스트이기도 한 오문자(吳文子)는 남편이자

본에서의 문화적 기억 - 오충공의 기록영화와 김의경의 기록극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89, 2021.

12) 1985년 초연에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거쳐 관동대진재 당시 내무상을 지낸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경무국장을 거쳐 진재 당시 경무총감으로 있던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등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본 고위관료의 명령이 서사적 화자로 등장하여 후손들에게 진재 당시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100주기를 맞이하는 2023년 시점에서 이들은 물론 청자들도 이미 사거(死去)한 상태이므로 무대 위에 등장하는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김의경,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김의경 희곡선Ⅱ-길떠나는 가족』, 현대미학사, 1998.

13) 『過酷な状況下で力強く生きる』, 『asakomo』 260, 2023.8.17.

역사학자인 이진희(李進熙, 1929-2012)와 함께 오랜 기간 김달수와 교분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달수 탄생 100주기 기념전(가나가와현神奈川 県 근대문학관, 2021)을 준비하면서 제 30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올랐던 『현해탄』의 무대공연을 구상했다고 한다.¹⁴⁾ 극단이나 연극 단체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김달수가 오랜 기간 살았던 조후 지역의 시민단체가 기획하여 극단과 협업으로 진행된 매우 독특한 형태의 공연이라는 점에서¹⁵⁾ 일본의 공연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유명 극단인 노다 맵(NODA MAP)의 〈토끼, 파도를 달리다(兎、波を走る)〉(노다 히데키野田秀樹 작, 연출)는 저명한 배우 마쓰 다카코(松たか子)와 다카하시 잇세(高橋一生)가 출연한 작품으로서 도쿄예술극장(東京芸術劇場) 대극장이 전석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끈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이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노다 히데키의 최첨단의 무대 연출을 통해 다루고 있다. 일본 무대예술의 최전선을 걸논질로 본 듯한 인상을 받았다.¹⁶⁾

극단 스바루(昴)의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親の顔が見たい)〉는 일본 체류 기간 중 본 공연 중에서 가장 완성도와 몰입도가 높았던 작품이다. 일본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2012년 1월 한일연극교류협회의 제 5회 일본현대희곡 낭독공연에서 번역 소개되고 단행본 출판까지 된 작품이다.¹⁷⁾ 낭독공연에서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5개월 뒤 무대화

14) 吳文子, 「演劇『玄海灘』を企画して」, 『東洋經濟日報』, 2023.5.26.

15) 앞에서 언급한 〈윤동주 이야기〉의 배우 니노미야 사토시와 도쿄연극양상블(東京演劇アンサンブル)의 제작 협력으로 상연되었다.

16) 공연과 같은 시기에 월간 『신조(新潮)』에 희곡이 전재되었다. 野田秀樹, 「兎、波を走る」, 『新潮』, 120(8), 2023.

17) 하타사와 세이고, 기무라 노리코·이성곤 역,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현대일본희곡집·5』, 연극과인간, 2012.

되어 1개월여의 공연 기간 중 13,000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본 영화감독 김지훈이 영화로 제작하여 설경구, 문소리가 주연한 영화로도 재탄생한 바 있어, 한일연극교류의 대표적인 성과로도 손꼽힌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초연 이후로 몇 차례나 재공연되었으며 필자가 방일 연구에서 돌아온 뒤인 2023년 11월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극장 공연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학생극이나 워크숍, 프로젝트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¹⁸⁾ 한국 원작이 연극으로 재탄생한 〈별을 스치는 바람〉과 반대의 방향으로 일본 연극이 한국에서 영화화가 된 매우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일본 주요 극단의 공연 현황

직접 한국과는 관련성이 없지만 필자가 일본에서 접한 주요 극단의 작품은 총 13편으로서, 여기에는 당초 예정된 방문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본을 재방문하여 관극한 작품도 포함된다. 도쿄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필자가 주변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획득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취사선택한 작품들로서, 특별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레파토리 선정이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 둔다.

작품명	극단	관극일시	공연장소	비고
피를 파는 남자	극단 동연	6/9 (금)	배우좌극단	공연 취소
이 밤은 끝나지 않아	극단 배우좌	6/9 (금)	배우좌 스튜디오	
R.P.G.롤플레이게임	극단원투웍스	6/16 (금)	아카사카레드시어터	
스트레이트라인크레이지	린코군	7/13 (금)	시모기타자와자스즈나리	번역극
소녀도시로부터의 메아리	신주쿠양산박	7/28 (금)	시어터밀라노좌	

18) 다만 한일연극교류협회의 낭독 공연과 이어진 본공연 성공 이후 원작자와 번역가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공연이 빈번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작품명	극단	관극일시	공연장소	비고
아방열차	청년단	8/10 (목)	레인 시어터	
기억나지 않는 꿈 몇 가지	청년단	8/10 (목)	레인 시어터	
창 밖의 결혼식	청년단	8/12 (토)	다이라 중앙공원	
트로이의 여인	SCOT	8/25 (금)	도가 예술공원	
디오니소스	SCOT	8/25 (토)	도가 예술공원	
세계의 끝에서 안녕 I	SCOT	8/25 (토)	도가 예술공원	
동맹통신	청년좌	10/13(금)	신주쿠시어터탑스	
KOTATSU	청년단	10/14(토)	시어터 트랩	

여기에서는 4장에서 다루게 될 각종 공연예술제에서 공연된 작품을 제외한 7편의 작품을 다루려 한다. 연구기간 중 필자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예약한 작품이 극단 도엔(劇団東演)의 〈피를 파는 남자(血を売る男)〉인데, 이 작품은 중국 작가 위화(余華)의 소설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를 배우좌극장(俳優座劇場)에서 무대화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2003년 허삼식의 각색으로 극단 미추에서 무대에 올려 제40회 동아 연극상 작품상, 연기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 〈허삼관매혈기〉(하정우 연출, 2015)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지기도 한 작품이다. 한국 공연을 보지 못한 터라 일본 공연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공연 당일 배우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취소된 후 공연 전체가 아예 취소되어 다시 볼 기회가 없어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원작 소설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무대화되는지 궁금한 작품이었지만 보지 못해 아쉽고 재공연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공연이 취소된 후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차에 극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연극평론가의 소개로 배우좌 스튜디오(俳優座スタジオ)에서 상연된 〈이 밤은 끝나지 않아(この夜は終わらぬ)〉라는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작품이 필자가 일본에서 최초로 접한 연극 작품이 되었다. 우연히 보게 된 작품이긴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 관련 이슈를 혐오라는 사회

적 문제와 결부시킨 매우 뜻깊은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무대를 한국으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혐오 문제를 잘 다룬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한일연극교류협의회와의 낭독공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¹⁹⁾

극단 원투웍스(ワンツーワークス)의 <R.P.G. 롤플레이 게임(R.P.G.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은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 원작의 소설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일한연극교류센터 부회장인 배우 홍명화가 출연하기도 했다. 인터넷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이후 나타난 가상공간과 가상가족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원작자 미야베 미유키는 한국에서 수십 편의 작품이 번역, 소개되어 ‘미야베 월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작가이다. 문고판 전작소설로 2001년에 출판된 원작소설은 2003년 NHK에서 <R.P.G. 만들어진 가족의 비밀(R.P.G. 作られた家族の秘密)>이라는 제목으로 단막 드라마로 제작된 바 있고,²⁰⁾ 2004년에는 고조 도시노부(古城十忍)의 각색, 연출로 초연한 뒤, 2011, 2016년에 각각 재연된 바 있다. 다만 자신이 주재하는 극단 원투웍스에서 아카사카 레드시어터(赤坂RED/THEATER)를 무대로 하게 되면서 배우 캐스팅과 무대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 2023년 공연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원작의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작품으로 무대화에도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무대 ‘공간’에서 재현한다는 점에

19) 이 작품은 일본 문화청의 문화예술진흥비보조금(무대예술 등 종합지원사업)을 받은 작품이다. 한일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한국 인과도 관련되는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에 지원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한국 공연예술계와 예술행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20) 2003년 7월 26일 하이비전 드라마로 방송되었다.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9040385_00000

서 무대예술이 가진 독창성이 잘 드러난 공연이었다. 최근 한국의 문단과 공연계에서 장르 문학과 SF 계열의 작품이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일본식 미스터리와 SF 연극 역시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쿄, 9월의 거리에서〉를 제작한 극단 린코군의 사카테 요지가 연출한 〈스트레이트 라인 크레이지(ストレート・ライン・クレイジー)〉는 2022년에 'NT Live 시리즈'의 하나로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된 외국 작품이다. 〈스카이라이트〉의 극작가 데이비드 헤어의 최신작을 니콜라스 하이트너가 연출한 이 작품은 뉴욕이라는 도시를 설계한 로버트 모제스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시모기타자와 자 스즈나리(下北沢ガ・スズナリ)에서 상연되었다. 필자가 일본에서 본 유일한 서양 연극의 번역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한연극교류센터에서 활동하면서 한일연극 교류에도 조예가 깊은 사카테 요지의 연출력이 배우들의 짜임새 있는 연기로 잘 빛어진 작품이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자이니치 연출가 김수진이 이끄는 신주쿠 양산박의 〈소녀도시로부터의 메아리(少女都市からの呼び声)〉(가라 주로唐十郎 원작²¹⁾)는 1994년 일본 문화청 예술제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프랑스(아비뇽 연극제), 한국, 캐나다, 중국, 대만, 미국 등에서 상연된 바 있다. 2023년 6월에는 하나조노(花園)신사 경내 특설 텐트에서 공연되었는데, 가라 주로와 김수진의 공연 특성이 잘 드러나는 텐트 공연을 놓친 필자는 같은 해 7월 시어터 밀라노좌(Theater Milano Za) 개설 기념 공연(실내극장 공연)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극작가인 김지하와의 교류로 알려진 가라 주로의 작품이 무대공연되는 것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김지하가 가라 주로의 텐트 공연에서 큰 자극을 받아 마당극을 비롯한

21) 唐十郎, 『少女都市からの呼び声』, 東京: 株式会社右文書院, 2008.

자신만의 독특한 연극 세계를 펼쳐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²²⁾ 한 일연극 교류의 원점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만 이 공연은 가라 주로 고유의 난해성과 패전 후 일본 관동군의 억류 및 귀환이라는 소재가 주는 위화감 등으로 인해 한국 공연에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²³⁾

청년좌의 신작 공연 〈동맹통신(同盟通信)〉(신주쿠시어터탑스新宿シアタートップス)은 〈노란 봉투〉 공연 당시에 맺은 극단 관계자와의 인연과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된 작품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방송협회의 라디오 방송(JODK)을 박사논문으로 쓴 필자의 관심 주제 중 하나가 전쟁기 일본의 전쟁 보도를 주도한 동맹통신과 일본방송협회의 뉴스 방송이기 때문이다. 전쟁 말기 전쟁 보도에 참가한 일본방송협회 아나운서들을 다룬 2024년 종전 특집 NHK 스페셜 〈아나운서들의 전쟁(アナウンサーたちの戦争)²⁴⁾이라는 다큐 드라마를 보면서 미디어 종사자의 전쟁 협력 문제를 매우 잘 다루었다고 생각했기에, 연극 〈동맹통신〉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한편으로 통신사를 소재로 한 연극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는데, 통신사라는 미디어 회사를 다루면서도 조직보다는 그 조직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물 군상을 잘 묘사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전화(戰禍)가 그치지 않는 세계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미디어 종사자의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잘 그린 수작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성 있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무대공연으로 올리고 있는 청년좌의 기획력이 돋보였다.

22) 김재석, 「〈진오귀〉에 미친 카라 주로(唐十郎)의 영향」, 『한국극예술연구』 32, 2010.
23) 참고로 이 작품은 2010년 3월 두산아트센터에서 김수진 연출로 신주쿠양산박 배우들에 의해 한국어 자막과 함께 일본어로 공연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24) 2023년 8월 14일에 NHK에서 방송되었다. <https://www.nhk.jp/p/special/ts/2NY2QQLPM3/episode/te/7QVKY4N8R8/>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극단으로 알려진 청년단(青年団)의 <KOTATSU>의 경우 이 작품의 도쿄 공연이 계획된 것을 알고 연구 기간 종료 후 일부러 일본을 재방문하여 본 작품이다. 조반센 무대예술제에서 히라타 오리자의 초기 작품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어 청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 작품은 청년단과 20여 년의 교분이 있는 프랑스 극작가 파스칼 랑베르(Pascal Rambert)가 극단을 위해 집필한 작품을 ‘고마바야고라극장(こまばアゴラ劇場) 국제연극교류 프로젝트 2023 레퍼토리’의 하나로 공공극장인 시어터 트랩(シアターラム)에서 공연한 것이다. 일본의 고유한 난방도구이자 가족 단란의 상징인 고다츠(こた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과 그 치유를 담담하게 잘 그린 작품이다.

IV. 일본내 각종 공연예술제

4장에서는 방일 연구 중 중 참가한 공연예술제에 대해 기술하려 한다. 일한연극교류센터와는 별도로 한국 신인 극작가의 작품을 일본에 소개하는 ‘한국신인극작가 시리즈’, 조반센(常盤線) 연선의 재개통을 기념하여 후쿠시마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조반센 무대예술제 2023’,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연출가 스즈키 타다시(鈴木忠志)가 운영하는 스즈키 도가 컴파니에서 매년 여름 진행하는 지역 공연예술 축제 ‘SCOT Summer Season 2023’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1.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

우선, 이번에 7회를 맞이한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韓 新人劇作家シリーズ)’는 ‘신춘문예’라고 하는 한국의 독특한 작가등단 제도를 통해 희곡 작가로

데뷔한 신인의 작품을 일본의 관객에게 소개하는 매우 독특한 기획이다.²⁵⁾ 2012년에 시작된 이 연극제는 장차 한국 연극을 이끌어갈 신진을 일본에 소개하여 한일 연극 교류에 기여하고, 사회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인 시각에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팬데믹이 대략 마무리가 된 2023년에는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동안 소개된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다섯 작품을 다시 공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일보 신춘문에 수상작품인 <뫓(罨)>(허진원 작, 요시무라 유우吉村 ゆう 연출)은 디지털 카메라 판매점을 무대로 카메라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과 이에 대응하는 직원의 감성노동 문제를 다룬 작품이고, 부산일보 신춘문에 수상작인 <가을비(秋雨)>(정소정 작, 김세일 연출)는 번두리 호텔에서 일어난 연속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한 가족의 기구한 가족사를 그린 작품이었다. 서울신문 신춘문에 수상작품인 <변신(変身)>(이시원 작, 가노메 유키鹿目由紀 연출)은 서울에서 사람이 사물로 변해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근미래 SF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경상일보 신춘문에 수상작품인 <명예로울지 몰라, 퇴직(名誉かもしれない, 退職)>(김연민 작, 가네코 겐타로金子賢太郎 연출)은 정리해고를 앞둔 직장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희극적인 터치로 그린 작품이었다. 이상의 네 작품은 일본 배우가 등장한 공연이라면, 한국일보 신춘문에 수상작인 <아빠들의 소꿉놀이>(パパのパパごっこ)(황윤동 연출)는 한국에서 극단과 배우가 와서 직접 공연을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공연을 보지 못했다.

한번의 공연에 두 편을 동시에 상연하는 형식이어서 짧은 시간에 무대를

25) 뒤에 소개할 <가을비>의 연출가 김세일이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 실행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새롭게 세팅해야 하는 등 다소간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오브제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도 단막극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들이었다. 이번에 공연한 작품들로만 한정할 때 장르적으로는 최근 젊은 층이 관심을 많이 가진 SF, 미스터리 형식의 작품들이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 시리즈를 부산 출신의 연출가 김세일이 주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국지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경상일보 등 지역지 신춘문에 수상작까지 두루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는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이벤트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무대 공연에까지 이르지 못한 작품이 일본에서 먼저 공연된 사례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시리즈는 한일연극교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경우라 할 것이다.

2. 조반센 무대예술제

‘조반센 무대예술제(常磐線舞台芸術祭)’는 2011년 동일본대진재 당시의 피해로 단절되었던 조반센이 재개통(2020)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제대로 된 이벤트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소설가 겸 극작가 유미리와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平田オリザ)가 손을 잡고 새롭게 기획한 공연예술 축제이다. 첫회인 2023년의 주제는 ‘잇다(つなぐ)’로서 태평양 연안을 연결하는 조반센 연선의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예술 축제가 열렸다. 필자는 그 중에서 레인 시어터(レインシアター)에서 열린 청년단(青年団)의 공연 두 편(〈아방열차(阿房列車)〉, 〈기억나지 않는 꿈 몇 가지(思い出せない夢いくつか)〉)과 다이라 중앙공원(平中央公園)의 야외무대에서 열린 유미리 원작의 〈창 밖의 결혼식(窓の外の結婚式)〉 세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 등의 작품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의 초기 작품으로 알려진 두 작품은 연작으로 보이는데, “미야자와 겐

지의 『은하철도의 밤』과 『아오모리 만가』, 우치다 모모한의 『아방열차』, 테라 야마 슈지의 『코멧 이케야』 등을 소재로 하여 세 남녀의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행선지가 불분명한 구불구불한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에 실어 그린” 것이라고 한다.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던 청년단의 두 작품은 아방열차라고 하는 열차 안의 풍경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다룬 작품으로서 〈고도를 기다리며〉에 필적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히라타 오리자의 작품이 몇 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작품들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도 소개되어 공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유미리의 원작을 호리카와 호노오(堀川炎)가 연출한 〈창 밖의 결혼식〉은 후쿠시마를 덮친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동일본대진재가 남긴 상처와 그 치유를 그린 작품이다. 유미리는 제 116회 아쿠타가와 상(芥川龍之介賞)을 수상한 『가족 시네마(家族シネマ)』(1997)를 통해 한국 사회에 소설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물고기의 축제〉(1997), 〈그린벤치〉(2005), 〈해바라기의 관〉(2011), 〈정물화〉(2012) 등 그가 쓴 희곡 작품 또한 여러 편 한국에서 공연된 바 있다. 이번 조반센 무대예술제를 통해 그녀가 일본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조부의 고향인 후쿠시마에 정착해서 후쿠시마 부흥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이미 공연된 바 있는 〈창 밖의 결혼식〉은 이번에 야외 무대에서 새로운 연출로 공연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일연극교류협회의 낭독공연에서도 동일본대진재를 다룬 작품이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작품도 한국에서 소개되었으면 한다.

이번 공연이 조반센 연선에서 진행된다는 사실만 알고서 구체적인 공연 장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로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센다이(仙台)에서 조반센 열차를 타고 레인시어터로 가면서 그곳이 동일본대진재 이후

한동안 ‘귀환곤란구역’이기도 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근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정보가 부족했던 탓에 레인시어터가 유미리가 후쿠시마에 정주하면서 만든 예술공간이고, 극장 앞에서 있는 카페 겸 서점 역시 그가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피폭지 근처에 일부러 정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인으로서 후쿠시마에 대해 가진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정의 이유로 더 많은 작품을 접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반센 무대예술제’가 끝난 뒤 일본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을 만나 들은 바에 따르면 이 페스티벌은 재정적으로 아주 곤란을 겪고 있어서 2024년에도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한다. 이 공연을 한국에도 알리기 위해서 한국의 인터넷 언론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소개했고, 현재 프로듀서인 유미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연예술을 통한 후쿠시마 부흥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이 기획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3. SCOT Summer Season 2023

‘스즈키 메소드’로 알려진 고유한 연기 훈련으로 유명한 연출가 스즈키 다다시는 <트로이의 여인들>(1987), <리어왕>(1994), <엘렉트라>(2008) 등 고전적인 작품들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도 일찌감치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현장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스즈키 도가 컴파니(鈴木利賀カンパニー, Suzuki Company of Toga)가 개최하는 한여름의 공연예술축제 ‘SCOT Summer Season 2023’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방일 기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였다. 일정상의 문제로 도야마(富山)에서 도가무라(利賀村)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1박 2일 동안 도가예술공원(利賀芸術公園)에서 세 편의 공연을 보고 스키의 강연에 1회 참가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다만 이들 작품이 현대 일본어가 아닌 고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필자의 언어적 역량의 한계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 번째로 본 공연 〈트로이의 여인(トロイの女)〉은 서양 연극에 노(能)를 비롯한 일본의 전통 공연예술이 접목된 매우 색다른 시도로 여겨졌다. 침묵과 느낌을 미학으로 가진 노가 서양의 사실주의 연극에 접목될 경우 매우 강렬한 연극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트로이의 여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의 국립극장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극인 창극에 동서양의 레퍼토리를 접목하는 퓨전 창극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레퍼토리 중 한 작품이 〈트로이의 여인〉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그리스 비극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디오니소스(ディオニソス)〉의 경우 연극의 신으로 불리는 디오니소스 신화를 다룬 작품으로서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와 중국어까지 사용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매우 이채로운 연극이었다. 뿐만 아니라 ‘스키 메소드’를 훈련받은 한중일 3국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특색이 있었다. 다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자막의 사용이 극에 몰입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일본과 아세안(ASEAN)의 우호협력 50주년 기념사업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2023년 가을 자카르타에서도 공연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끝에서 안녕 I (世界の果てでこんにちは I)〉은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서 연출되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인해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

진 작품이다. 적지 않은 관객들이 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도가예술공원을 일부러 찾아 올 정도로 ‘SCOT Summer Season’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이다. 내용 중에 일본의 패전을 모티브로 하면서 전전(戰前)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 다소간 모호한 표현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²⁶⁾ 그러나 스즈키 고유의 연기술과 야외공연이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타클을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즐길 수 있었다.

‘SCOT Summer Season 2023’의 경우 작품성도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반 세기 동안 이어지는 성공적인 지역의 공연예술 축제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갔다. 스즈키 다다시라고 하는 불세출의 연출가와, 그의 연극을 후원하는 많은 연극 팬들, 전세계의 연극평론가들,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까지 참석하는 컨퍼런스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인구 4천 명 남짓의 작은 마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한국에서도 밀양연극촌, 청도 코미디 극장, 정선 아라리 축제 등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문화 축제를 시도하였지만 일부는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도가예술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한여름의 연극 축제는 성공적인 지역공연예술제의 모범으로서,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26) 공연 중간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꽃처럼 산화한 ‘가미가제 특공대’, 미군에 의한 도쿄 공습과 히로시마 원폭 등을 은유적이고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작품 전체적으로는 군국주의와 천황제를 비판하는 듯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필자가 잘 모르는 대중가요 등 일본 음악과 더불어 ‘니뽀진(일본인)’이라는 시니피앙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어서 ‘일본인’이 아닌 필자로서는 모종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한국 연극 소개 현황 및 한국에 소개될 만한 일본의 현대 연극 및 공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한일 연극 교류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필자가 체재하는 동안 일본에서 접했던 한국 관련 공연 중 한국에서 이미 공연된 작품으로 김의경 원작의 <길 떠나는 가족>, 이양구 원작의 <노란 봉투> 등을 들 수가 있다. 1인극연구회의 <운동주 이야기>, 청년극장의 <별을 스치는 바람>은 시인 운동주의 삶과 시를 그려낸 작품이다. <9월, 도쿄의 거리에서>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는 관동대진재 100주기를 맞이하여 당시의 조선인 학살 문제를 그린 작품이다. <현해탄>은 시민단체가 기획하여 극단과 협업으로 진행된 매우 독특한 형태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공연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노다 맵의 <토끼, 파도를 달리다>는 최첨단의 무대 연출을 보여준 작품이다. 학폭 문제를 다룬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한일연극교류의 대표적인 성과로도 손꼽힌다.

한국과 관련이 없는 작품 중 본 필자가 일본에서 접한 최초의 작품 <이 밤은 끝나지 않아>는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 관련 이슈를 혐오라는 사회적 문제와 결부시킨 매우 뜻깊은 작품이다. <R.P.G. 롤플레이게임>은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 원작의 소설을 무대화한 것으로, 작가의 명성에 걸맞는 내용을 잘 무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주쿠 양산박의 <소녀도시로부터의 메아리>는 김지하와의 교류로 알려진 가라 주로의 작품을 실제로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청년좌의 신작 <동맹통신>은 전화가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미디어 종사자의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잘 그린 수작이고, 청년단의 신작 <KOTATSU>는 가족단란의 상징인 고다츠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치유를 담담하게 잘 그린 작품이다.

www.kci.go.kr

필자는 재류 기간 중 한국신인극작가 시리즈, 조반센 무대예술제 2023, SCOT Summer Season 2023의 세 공연예술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7회를 맞이한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는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이벤트였다. 2023년에 처음 시작된 ‘조반센 무대예술제’는 ‘잇다’라는 주제를 통해 2011년 동북대진재 이후 중단되었던 조반센의 재개통을 축하하면서 후쿠시마 부흥을 도모한 뜻깊은 예술제였다. ‘SCOT Summer Season 2023’의 경우 반 세기 동안 빠짐없이 이어지는 성공적인 지역의 공연예술 축제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갔다.

이상의 방일 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극 공연을 접하게 됨으로써 한일 연극교류의 미래에 대해 좀더 넓은 시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연구 기간 중 새롭게 알게 된 한일연극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한일 연극 교류의 전망 및 향후의 연구과제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한국의 근대 연극은 식민지 시기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일본을 통해 들여온 신극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신극=서양 근대극이라는 인식이 공고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연행예술이 개화기 이후 변모를 겪으면서 전통극을 현대화한 창극, 일본을 통해 수용된 신파극,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서양 신극 이렇게 세 종류의 연극이 근대극을 구성하였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한국 연극은 미국 등 서양 연극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연극 잡지 『희극비극(悲劇喜劇)』이 2023년 7월호를 ‘한국연극 및 뮤지컬 특집’으로 구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한류’ 붐은 연극 분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본의 영향을 통해 한국 근대극이 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연극 문화는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관객층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필자가 관람한 작품 중에서 대중적인 작품 한두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품은 중년 이상의 관객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20~30대의 젊은 여성이 주된 연극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는 청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젊은 세대의 연극 공연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한국과 달리 일본의 공연 관극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사실과도 결부된다. 일본의 경우 일부 연극은 마티네(matinée) 공연이 더 빨리 매진되는가 하면 일부의 경우 야간공연은 할인이 되고 있었다. 낮 공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마티네 할인이 많은 한국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관객층의 차이는 작품 레퍼토리에 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성이나 사회성이 강한 일본의 연극에 비해 한국 연극이 다소 가벼운 코미디 흥행극 위주인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젠더 및 환경 이슈를 다룬 연극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역시 젊은 여성이 주된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공연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 연극이 당면한 문제라면 일본의 경우 관객층의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공연예술에 대한 정부나 각종 재단의 지원 정책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필자가 예술행정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상적인 평가를 일반화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작가, 극단은 물론 관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객층이 다양하고 연극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의 지원 정책은 극단 등 공급자 위주이기 때문에 정책적 혜택이 관객에게 직접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공연예술 지원 정책은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므로 연극 관련 기관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공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권의 변동에 따른 지원 정책의 급변 등으로 장기적 안목의 교류 행사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로 일본 고유의 ‘연극감상회’가 가진 명암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 연구 기간 중에 필자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것이 일본 고유의 관극 문화로서의 ‘연극감상회’이다. 여행차 들렀던 아키타(秋田)에서 김의경 원작의 <길 떠나는 가족>의 공연 포스터를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도 거의 서울에서만 공연되었던 이 작품이 일본 도후쿠(東北)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도 공연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나중에 아키타 시립문화관에 놓여 있던 ‘관극회’의 팸플릿을 보면서 이 공연의 지방공연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짐작을 하게 되고, 이후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연극감상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당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자 연극감상 단체인 ‘근로자 연극협의회(勤勞者演劇協議會, 약칭 로엔(勞演))에서 출발한²⁷⁾ 이 연극 운동이 오늘날 각 지역의 ‘연극감상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부러움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별을 스치는 바람>의 경우 지역별 연극감상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길 떠나는 가족>의 도쿄 기타구(北区) 공연 포스터를 보고, 아직 공연을 보지 못한 한국인에게 이 공연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연극감상회’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즉 지역에서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직접 도심의 극장을 찾지 않고서도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27) 齋藤陽一, 「1960年代の勞演－その總會での議論」, 『新潟大 言語文化研究』 26, 2024, pp.38~39. ‘로엔’의 기원은 1948년 7월 3일 도쿄에서 결성된 ‘근로자연극협동조합’이다. 大笹吉雄, 『日本新劇全史第二卷：昭和二十年～昭和四十年』, 東京：白水社, 2020, p.104.

연극감상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 지역에서 하는 공연이라 할 지라도 개별적인 관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극감상회가 스타가 등장하는 대형 연극 위주의 레퍼토리로 구성되고 지역별 연극감상회 협의회에서 관여하게 되면서 역사가 짧은 극단이나 유명 배우가 등장하지 않는 연극의 경우 지방 순회 공연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구성원의 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연극감상회가 해체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연극감상회의 역사와 현황, 빛과 그늘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4년 5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24년 5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5월 29일

참고문헌

〈자료〉

- 가토 나오키, 서울리다리티 역,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1923년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 갈무리, 2015.
- 김의경, 『김의경 희곡선Ⅱ—길떠나는 가족』, 현대미학사, 1998.
- 하타사와 세이고, 기무라 노리꼬·이성곤 역,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현대일본희곡집·5』, 연극과인간, 2012.
- 加藤直樹, 『九月、東京の路上で—1923年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 東京: ころから, 2014.
- 唐十郎, 『少女都市からの呼び声』, 東京: 株式会社右文書院, 2008.
- 李羊九, 石川樹里訳, 「黄色い封筒」, 『悲劇喜劇』 823, 2023.7.
- イ・ジョンミョン, 鴨良子訳, 『星をかすめる風』, 東京: 論創社, 2019.
- 野田秀樹, 「兎, 波を走る」, 『新潮』, 120(8), 2023.

〈연구논문〉

- 김재석, 「〈진오귀〉에 미친 카라 주로(唐十郎)의 영향」, 『한국극예술연구』 32, 2010.
- 백현미, 「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과 1980년대 한국·일본에서의 문화적 기억—오충공의 기록영화와 김의경의 기록극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89, 2021.
- 서재길, 「한류 드라마에서 K—연극으로—한국 근현대연극의 일본 소개 현황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29,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2021.

大笹吉雄, 『日本新劇全史第二卷：昭和二十年～昭和四十年』, 東京：白水社,
2020.

齋藤陽一, 「1960年代の労演－その総会での議論」, 『新潟大 言語文化研究』
26, 2024.

〈공연 정보 인터넷 리소스¹⁾〉

文化座『旅立つ家族』ホームページ

<http://www.bunkaza.com/theaters/tabidatu2023/tabidatsu.html>

劇団青年座第252回公演『黄色い封筒』ホームページ

<https://www.seinenza.com/information/detail/id=242>

一人芝居研究会第10回試演会ホームページ

<http://www.theaterx.jp/23/230613-230616p.php>

秋田雨雀・土方与志記念青年劇場第131回公演『星をかすめる風』ホームページ

<https://www.seinengekijo.co.jp/s/star/2023/>

映画『福田村事件』ホームページ

<https://www.fukudamura1923.jp/>

燐光群『九月、東京の路上で』ホームページ

https://rinkogun.com/portfolio/20230828_9gatsu_tokyo_no_rojode/

1) 공연 관련 홈페이지 정보는 논문 투고일(2024.5.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新宿梁山泊『失われた歴史を探して』ホームページ

<http://www.s-ryozanpaku.com/#works>

玄海灘を上演する会『玄海灘』ホームページ

<https://wsbel.hp.peraichi.com/genkainada>

NODA MAP『兎、波を走る』ホームページ

<https://www.nodamap.com/usagi/>

劇団昴公演『親の顔が見たい』ホームページ

https://www.theatercompany-subaru.com/public_2023.html

劇団東演 第165回公演『血を売る男』ホームページ

<https://t-toen.com/stage/165.html>

劇団俳優座『この夜は終わらぬ』ホームページ

<https://haiyuza.net/performances23/konoyoru/>

ワンツーワークス『R.P.G.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ホームページ

<https://www.onetwo-works.jp/works/rpg/>

燐光群『ストレイト・ライン・クレイジー』ホームページ

<https://rinkogun.com/news/after-talk-guest-straight-line-crazy/>

Bunkamura『少女都市からの呼び声』ホームページ

https://www.bunkamura.co.jp/cocoon/lineup/23_shojotoshi.html

「韓 新人劇作家シリーズ」ホームページ

<https://kojadec.com/>

「常磐線舞台芸術祭2023」ホームページ

<https://joban-line-paf.jp/>

「SCOT Summer Season 2023」ホームページ

<https://www.scot-suzukicompany.com/sss/2023/>

青年座『同盟通信』ホームページ

<https://www.seinenza.com/information/detail/id=329>

こまばアゴラ劇場 際演劇交流プロジェクト2023『KOTATSU』ホームページ

<http://www.komaba-agera.com/play/14361>

www.kci.go.kr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Japan Theater Exchange

: Focusing on the 2023 Season Performances in Japan

Jaekil Seo

This paper explores the outlook of Korean-Japanese theater exchang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Korean plays in Japan and the prospects for contemporary Japanese plays to be introduced in Korea. This research is based on field investigations of Korean-related plays and works by Japanese theater companies, interviews with theater experts, and participation in several performing arts festivals in Japan. Among the Korean-related performances that have already been performed in Korea are plays about historical figures, works dealing with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a series of works addressing Korean social issues such as labor issues. In addition, plays dealing with the Zainichi issue and the North Korean issue have also premiered. Although not directly related to Korea, there have also been plays depicting social problems in Japan such as school violence and foreign workers;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se could easily be transposed to the Korean context. Performing arts festivals such as the Joban Line Performing Arts Festival 2023 and SCOT Summer Season 2023 offer opportunities to encourage cultural exchange in the performing arts and to revitalize local culture. However, differences in performance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related to audience repertoir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regional theater appreciation activities must be included in considerations

of cross-cultural theater exchange. This study offers ideas and insight for future theater exchanges to maximize respective strengths.

Keywords

theater, plays, performing arts festivals, cultural exchanges, theater appreciation club